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1 보좌신부 : 김경영 (영주바오로)
 2 보좌신부 : 김세영 (파비아노)
 전 교 수 녀 : 김영희 (비앙카)
 박선옥 (에드워드)
 사 목 회 장 : 장병철 (올리아노)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초등부), 토요 저녁미사 : 19시 / 주일 :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고해성사	주 일 ✨ 미사 전 30분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평 일 ✨ 미사 전 15분
관면흔배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유아세례	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소 식

11월 본당 추천 도서



제목: 딱! 알맞게 살아가는 법
(저자: 안셀름 그뤼넨신부 / 가톨릭출판사)

이 책은 가톨릭 대표 영성가이며 영성 심리 상담의 대가 안셀름 그뤼넨 신부가 중용을 찾고, 자신 안의 치유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정 가: 12,000원 → 10,000원

● **감사합니다**
 * 지난 주일 전신자 배론 성지순례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분들과 성지순례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봉사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배론 성지순례 전신자 사진 모자이크 제작 이벤트**
 * 배론 성지에서 찍은 인물 사진들만 모아서 모자이크를 제작하려 합니다. 자신의 베스트 인물 사진을 한 장씩 보내 주세요.
 * 사진 조건: 배론 성지에서 찍은 본인 사진 (① 최대한 크게 나와야 할 것, ② 세로로 된 사진)
 * 사진 보낼 주소
 - 문 자 : 010-2806-0171
 - 이메일: 1973.cdssd@gmail.com

● **오질루 베드로 쉼터 추기경님 미사집전**
 * 2017년도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 참석 차 방한하신 브라질 오질루 베드로 쉼터 추기경님께서 저희본당을 방문하시어 미사집전을 하십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11월 5일(오늘) 11시 교중미사

● **교구장님 영명 축일 영적예물 봉헌**
 * 오는 11월 30일은 서울대교구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교우 여러분의 영적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 기도내용: ① 미사 참례 1번 ② 묵주기도 5단 ③ 희생 1번 ④ 주교를 위한 기도 5번 ⑤ 화살기도 5번

● **한가문연 후원회원들을 위한 피정**
 * 한국 가톨릭 문화 연구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피정으로 주임신부님과 함께해요♡
 * 일시: 11월 10일(금) 오전 9시, 성당출발
 * 장소: 연천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피정의 집
 * 신청: 본당 사무실 (02-3447-0750)

●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위한 축복미사**
 *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축복미사가 있사오니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11월 11일(토) 오후 5시
 * 문의: 백 로사 (010-8651-8000)

- **미디어 변화에 따른 스마트한 가족 소통 방법**
 * 일시: 11월 12일(주일) 오후 2시~ 5시(3시간)
 * 장소: 명동 서울 대교구청 3층 대회의실
 * 대상: 학부모 100명 (무료, 선착순)
 * 문의: 주교회의 매스컴 위원회(02-460-7626)
- **첫영성체 부모 교리 교사 모집**
 * 신청: 본당 사무실 (11월 26일 마감)
 * 문의: 김 파비아노 신부님 혹은 박 에드워드 수녀님
- **본당 구역미사 안내**
 * 본당 구역 활성화를 위해 구역미사를 실시하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구역	장 소
11월 9일(목) 20시	8구역	자이 아파트 104동 705호

● **한국 가톨릭 문화 연구원 2017 콜로키움**
 * 일시: 11월 11일(토) 오후 8시, 1층 프란치스코 홀

전체주제	길 위의 영성순례 문화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
소 주제	순례, 지구적 이동의 현실과 미래

● **본당 제 1회 가톨릭 독서 콘서트**
 * 일시: 11월 16일(목) 오후 8시, 2층 대성전
 * 강사: 조정래 작가
 * 주제: 우리의 현실과 미래

● **산악회 제 57차 산행**
 * 일시: 11월 11일(토) 오전 9시, 성당마당 출발
 * 장소: 남한산성 누리길 1코스 (북정역~남한산성 남문)
 * 준비물: 회비(1만 5천원, 중식제공), 간식
 * 문의: 김 사도요한 (010-8592-7514)

● **2018년 본당 달력 광고 접수(광고료: 60만원)**
 * 본당의 모든 신자들에게 배포되는 2018년도 달력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해외선교 후원회원 모집(11월 4일~5일, 모든 미사)**
 *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형제·자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청담 해외 선교 후원회의 회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 헬레나 (010-8771-0401)

● **전례 무용 동호회원 모집**
 * 일시: 매주 화요일 12시~13시, 청소년회관 지하
 * 문의: 정 안나 (010-3318-4732)

● **11월 5일(오늘): 민족 화해위원회를 위한 2차 헌금**

- 모 임**
- * 11월 5일(오늘): 상임 위원회
 - * 11월 6일(월): 춘천교구 후원 미사 (10시) / 성령 기도회(강사: 함옥숙 테레사)
 - * 11월 7일(화): 여성 Co.
 - * 11월 8일(수): 시몬회
 - * 11월 9일(목): 해외선교 후원회
 - * 11월 10일(금): 남성 Cu. / 현화회

성가번호 입 당: 65 예물준비: 212, 215 성 체: 159, 163, 164 파 건: 436

화 답 송



주 님 제 영 혼 을 당 신 의 평 화 로 지 켜 주 소 서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0)

【 교회사를 빛낸 탁월한 영적 독서가들 - ① 성 안토니우스 】

◎ 자연은 하느님의 책



‘은수자(외딴곳에 혼자 사는 수도자)들의 아버지’, ‘은수생활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성 안토니우스(251~356)는 부유한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스무 살이 되던 어느 날 부자청년에 관한 복음말씀(마태 19, 21)을 듣고 나서 모든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은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성덕과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어느 철학자가 안토니우스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은수자님, 독서의 위로 없이 어떻게 고통과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안토니우스는 “자연이 바로 책입니다. 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글을 읽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교회사’ 4, 23).

안토니우스에게 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는 책이라는 텍스트의 의미를 매우 넓게 해석합니다. 자연을 책이라고 비유한다면 책을 쓰신 분은 하느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기존의 책이라는 개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책의 개념을 정립합니다. 그에게 책은 더 이상 문자로 쓰인 텍스트가 아니라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모든 자연으로 확대됩니다. 안토니우스가 책을 바라보는 관점은 오늘날 ‘열린 텍스트’(open text) 개념에 해당합니다. 이 개념은 “텍스트 안에만 머물거나, 텍스트 밖에서만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상호작용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동반 텍스트’의 독서, 즉 텍스트를 접하면서 텍스트와 함께 하는 주변의 모든 지식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http://www.sociocritique.com/main3.htm> 참조)” 텍스트와 콘텍스트(context)의 상호작용을 통해 책을 읽고 의미를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텍스트가 지닌 현상과 기호를 해독하는 것 역시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들은 날씨를 알기 위해 하늘을 읽어야 하고, 어부들은 바닷물의 흐름을 읽어야 하듯 인간은 하느님의 뜻과 의지를 알기 위해 그분의 피조물인 자연을 읽어야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연이라는 텍스트 읽기를 통해 자기 존재의 정체성과 의미를 인식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텍스트인 자연, 특히 은수의 장소였던 사막에서 그분을 만나고 대화하며 그분의 뜻을 깨달은 안토니우스는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영적 독서가인 셈입니다.

청담동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교무금 납부 현황		감사 헌금 (10/25 ~ 10/31)			
연중 제 30주일	9,464,420원	총 세대수	3,886세대	정 골롬바	300,000원	박 엘리사벳	1,400,000원
교무금	25,995,000원	총 납부 세대	1,350세대	홍 로즈마리	300,000원	김 엘리사벳	100,000원
		지난주 납부 세대	1세대				
성소 후원금 (5건)	100,000원	총 납부율(%)	34.7%	합 계: 2,100,000원			